

광주비엔날레재단·지역화단 갈등

미술관협의회, 부대전시 예산지원 요청했다가 퇴짜

“비엔날레 기간 다양한 전시 열라던 姜시장 주문 무색”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비엔날레 기간 지역 미술관·박물관에서 다양한 특별전을 기획하겠다”는 광주시의 방침에 따라, 재단에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그동안 재단은 광주미술협회와 화랑협회 등 지역 미술 단체의 예산 지원 제안을 대부분 거절했다. 지역 미술단체의 요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1일 재단 이사장인 광주시 강운태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에서 “베니스 비엔날레도 인근 사립미술관을 활용해 전시회를 갖는다. 광주도 비엔날레 행사 때 사립미술관과 박물관에서 특별전을

기획하겠다”고 밝힌 광주시박물관·미술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말께 협의회 정송규(무등현대미술관 관장) 회장과 우제길(우제길미술관 관장) 전 회장 등이 재단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재단이 올해 첫 시행한 ‘포트폴리오 공모’의 탈락자 전시회를 협의회 산하 미술관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재단은 ‘포트폴리오 공모’를 실시, 1차로 10명을 선정 후 이들의 전시회를 연 뒤 2차 현장 심사를 해 제9회광주비엔날레 본전시 참여작가로 2~3명을 뽑는다.

정 회장 일행은 이들 10명 중 중도탈락해

본전시에 초대받지 못하게 된 작가들의 전시를 비엔날레 기간에 자신들의 미술관에서 대신 열어주겠다고 재단에 제안했다.

하지만 재단의 답변은 냉담했다.

정 회장은 “베니스비엔날레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오히려 많은 돈을 내야해 광주와는 경우가 다르다. 재단에는 협의회에 지원해 줄 예산이 없다”고 말해 얼마를 달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왔다”면서 “우리가 무작정 예산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장님 말에 따라 부대행사로 전시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도 거절하더라”고 말했다.

재단이 이처럼 협의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포트폴리오 공모’ 1차 합격자 10명의 전시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오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받아 오는 4월, 10곳의 지역 사립미술관 등 전시공간에서 2차 심사를 위한 전시회를 열어야 한다. 이처럼 일정이 빠듯한데도, 현재 갤러리 섭외는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 많은 전시공간이 연초에 이미 전시 일정을 확정해 버렸고, 재단이 12곳의 사립박물관·미술관이 모인 협의회에 요청을 목살해 더욱 전시장 잡기가 힘들어졌다.

일부 협의회 소속 사립미술관은 “재단이 전시관 대여를 요청할 경우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재단은 “베니스의 경우는 지역 미술관 등이 베니스비엔날레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 일정금액을 재단에 내고 있다는 예를 든 것이지만 광주비엔날레가 그러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광주비엔날레 기간 동안 지역 전시공간에서 다양한 전시행사 등을 치르는 방안을 현재 연구 중이며, 협의회에서 전시를 언더만 홍보 등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협의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전시 예산 지원을 요구한 광주시박물관·미술관협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으로 사용된 의재미술관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그리스 신화와 함께 명화 감상을

광주출신 이연식씨 '명화의 거짓말' 번역

광주 출신 미술사가 이연식씨가 나카노 교코가 쓴 ‘명화의 거짓말’을 번역했다.

이 책은 다양한 그리스 신화를 끄집어 내 명화를 감상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한 명화를 통해 역사와 고전, 다른 예술의 영역을 넘나들며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카로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은 몰라’ 편의 피터르 브뤼헬의 작품은 한가로운 플랑드르의 풍경화 같지만, 이 안에는 이카로스의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림 속 낚시를

하는 남자 앞에 버둥거리는 다리와 흩어진 날개가 보인다. 바로 이카로스가 바닷속에 빠진 직후의 모습이구나.

이씨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서양화 전공),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 전문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위작과 도난의 미술사’(한길아트)를 냈다. 시에가 화정 이문홍씨의 장남이기도 하다. <북폴리오·1만4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남도... 단아한 아름다움

서양화가 심금자, 2월 15일까지 북광주우체국갤러리

남도의 단아한 산자락과 농촌 풍경이 화폭에 펼쳐진다. 서양화가 심금자(안나)씨가 16~2월 15일 북광주우체국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심씨는 화려한 색과 섬세한 표현이 돋보이는 신작을 발표한다. 산수유가 흐드러지게 핀 구례 산동마을의 봄 풍경, 사람 허리까지 자란 풀숲을 한가롭게 거니는 여인의 모습 등이 고스란히 화폭을 장식하고 있다.

또 산봉우리 가득 눈을 쌓인 채 넉넉하게 펼쳐진 무등산과 찾는 이 없는 농가의 쓸쓸한 겨울과 태백의 황량한 겨울 들판을 담담하게 그려냈다.

심씨는 무등미술대전, 여성미술대전, 도솔미술대전 등에서 입선 및 특선했고 사생



‘무등산’

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광주 등지에서 20여 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10-9293-202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다문화가족 우리문화알기’

광주시립민속박물관 16~17일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오는 16~17일 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족 우리문화알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이 지역 다문화가족 40여 명이 ‘새해를 밝히는 향아리 등 만들기’ ‘복을 부르는 복주머니 만들기’ 등에 참여한다.

또 후호놀이, 제기차기, 고누놀이, 윷놀이 등 흥겨운 전통놀이도 곁들여진다.

문의 062-670-74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예술회관 어린이 놀이방 운영

도우미 공개채용... 오늘까지 접수

광주문화예술회관은 어린이 놀이방 운영 도우미를 공개채용한다.

담당업무는 대극장 어린이 놀이방 위탁아동 안전관리며 계약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유아교육 전공자, 유아도우미 근무 경력자,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자는 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연사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마감일은 16일까지다. 문의 062-613-835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3회 화봉학술문화상에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화봉문고가 창설한 화봉학술문화상 제3회 수상자로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소장 박재연)가 선정됐다.

화봉문고는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가 한글과 한문의 고어연구를 통해 한국 최초로 고어대사전을 편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 6시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화봉갤러리에서 열린다.

한편 화봉문고는 화봉학술문화상 수상 기념전으로 화봉갤러리에서 오는 20일부터 3월20일까지 한글 생활사 자료와 삼국지를 주제로 183점을 선보이는 ‘한글-중국을 만나다’전을 연다. /연필뉴스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4일까지 옛 전남도청 부지에 들어서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 공작장에 설치된 아트웍스에서 새해 맞이 이벤트를 연다.

이 아트웍스는 지난해 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아트웍스 중 총장로 1가 인근의 자석벽 구간은 자석에 의해 벽에 그림이나 글을 쓸 수 있게 했다.

문화재단은 이번 행사를 위해 1만여개의 자석을 보충, 시민들이 자신의 새해 소망과 다짐을 자유롭게 자석으로 표현하면서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자석놀이를 펼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해 소망 적어주세요” 靑문화전당 아트웍스 자석벽 이벤트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4일까지 옛 전남도청 부지에 들어서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 공작장에 설치된 아트웍스에서 새해 맞이 이벤트를 연다.

이 아트웍스는 지난해 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아트웍스 중 총장로 1가 인근의 자석벽 구간은 자석에 의해 벽에 그림이나 글을 쓸 수 있게 했다.

문화재단은 이번 행사를 위해 1만여개의 자석을 보충, 시민들이 자신의 새해 소망과 다짐을 자유롭게 자석으로 표현하면서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자석놀이를 펼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24일까지 옛 전남도청 부지에 들어서고 있는 아시아문화전당 공작장에 설치된 아트웍스에서 새해 맞이 이벤트를 연다.

이 아트웍스는 지난해 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아트웍스 중 총장로 1가 인근의 자석벽 구간은 자석에 의해 벽에 그림이나 글을 쓸 수 있게 했다.

문화재단은 이번 행사를 위해 1만여개의 자석을 보충, 시민들이 자신의 새해 소망과 다짐을 자유롭게 자석으로 표현하면서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 주는 자석놀이를 펼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희망찬 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한 해 보내주셨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고객님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3인이상) A코스 - 38,000원 B코스 - 33,000원 C코스 - 25,000원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신년 모임을 위한 떡국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외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

최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크리마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